

2012학년도 수시 논술 모의고사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II)

소속 학교	고등학교	수험 번호	성 명
-------	------	-------	-----

◆ 유 의 사 항 ◆

1. 시험 시간은 120분임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번호에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지 분량은 문항별 답안 길이에 맞추어져 있음

감독확인



이 화 여 자 대 학 교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 사이의 안정적인 성적(sexual) 연계를 통해 수립된 관계는 매우 자연스러운 공동체이다. 그러나 이런 자연적 공동체가 경제적으로 유지되지 못한다면 그 존립 근거는 불안정해지고 만다. 부계 사회도 이와 같은 경제적 기반 없이는 존속하기 어렵다. 경제적 기반이 없이도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자연적 관계는 모자 관계에 국한된다. 모자 관계는 자식이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유지되는 생물학적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형제자매들 사이의 부양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공통의 부모를 갖는다는 점보다는 공동의 경제적 생존 기반을 지닌다는 점에서 가족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가족공동체가 특수한 사회제도로 자리 잡게 되면 성적·생물학적 관계를 넘어 다양한 집단적 관계가 그로부터 만들어진다.

한편 결혼이라는 관념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단순히 성적 연계와 사회화 과정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라는 관념은 이런 기능을 넘어서 다른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기 때문이다. 결혼은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서 단순한 성적 관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인데, 이는 종족으로부터 허가 받지 못한 결혼의 경우 종족의 관용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특히 결혼 관계에서 탄생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안정적이면서 허가 받은 관계일 경우에만 종족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적자와 서자의 구분은 이처럼 가족과 종족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결혼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이처럼 단순한 성적·생물학적 관계를 넘어 집단적인 규제 하에 가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물학적 공동체가 하나의 가족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경제조직의 기반 위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사냥과 유목을 주로 하던 원시시대에는 가족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 설사 가족공동체가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단지 부차적인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후의 가족은 포괄적인 경제적 집단으로 발전해 왔으며, 지속적이면서 집중적인 사회 행동을 가능케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족의 기반 위에 다른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나] 토요일이 되자 이진우는 나무표찰을 모아 회계원에게 제출하였고 돈을 받았다. 그걸 가지고 매점으로 가 일주일 간 먹을 음식을 샀다. 네 식구가 먹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굶다시피 하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이종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밥은 가장 먼저, 많이 먹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숭고한 의무라도 되는 것처럼 그는 식사 때마다 흠바닥일지언정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가장 먼저 밥숟가락을 들었다. 아들(이진우)에게는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아내와 딸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가부장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일이 다반사인 왕조의 후손이었다. 그로서는 어쩌면 사약을 받는 게 마음 편했을 것이다. 그 어떤 유배와 귀양도 이보다 잔인하지는 않았다. 설령 가장은 절해고도로 내쫓긴다 해도 식솔들은 종친과 노복이 있는 고향에서 왕의 사면을 기다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선 사대부로서의 최소한의 존엄도 지킬 수가 없었다. 조선조에서 사대부가 이렇게까지 내몰리기는 쉽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쓸데없이 비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했던 이종도 자신의 잘못이며 누구와도 책임을 나눌 수 없다는 데에 그의 비극이 있었다. 최소한 필담은 통하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가 한때 다녀온 베이징에서 그랬던 것처럼, 서로 말은 통하지 않더라도 위대한 문자인 한자를 쓰면 뜻이야 통하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뻗속 깊이 통감하면서도 그는 아버지로서의 권위는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였다. 비굴함을 가르칠 수는 없었다. 사대부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가장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고개를 숙인다면, 가족이 잘못했을 때 누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종도는 멀건 옥수수죽을 천천히 마시고 아들에게 말했다.

밥을 잘고 쟁기를 끄는 것은 부끄럽지 않다. 그러나 역관에게 빌붙어 오랑캐 말을 배워 뭘 어찌자는 것이냐. 어조가 준엄했다. 진우는 지지를 바라는 듯 어미와 누이의 눈을 한 번씩 쳐다본 후에 아비에게 답했다. 변성기가 채 지나지 않은 그의 목소리가 바르르 떨렸다. 그럼 어찌자는 것입니까, 아버지. 그는 피투성이가 된 손과 팔을 제 아비에게 내보였다. 보십시오. 단 사흘 만에 백성들의 손과 발이 모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둔해서가 아니라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오랑캐의 것이라도 배우고 익혀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 사회를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본다면, 그 중에서도 서로 탄탄하게 맺어진 집단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연결된 집단도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를 ‘강한 고리’, 그리고 후자의 경우를 ‘약한 고리’라고 부른다. 가족이나 절친한 동료 집단의 경우는 강한 고리고, 가끔씩 만나는 사람을 통해 외부와 접촉하는 경우는 약한 고리에 해당한다. 전통적으로 강한 고리는 집단의 유지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지만,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약한 고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약한 고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외부로 연결되는 짧은 경로를 보다 다양하게 만들어 내는 변방의 다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고리를 제거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제거되는 고리와 연결된 경로들과의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임의의 두 지점을 연결하는 평균 경로의 길이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만약 이렇게 제거된 고리가 약한 고리였다면, 이것은 강한 고리가 제거되는 경우에 비해 훨씬 더 큰 피해를 네트워크에 입히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한다면, 네트워크상에서 확산되는 모든 것들은 강한 고리보다도 약한 고리를 거치는 경우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먼 거리에 도달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가까운 친구에게 어떤 소문을 퍼뜨리고 그 친구는 다시 다른

친구에게 이를 전파한다면, 강한 고리 속에서는 똑같은 소문을 몇 번이고 듣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강한 고리 속에서는 친구들의 범위도 서로 겹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문이 돌 때마다 강한 고리 안에서 소문을 확산시키려는 동기를 어느 정도 위축시킨다면, 그 소문은 극소수의 친구집단 내에 머물고 만다. 말하자면 이 소문은 여러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다리’를 더 이상 건너지 못하게 될 것이다. 소문뿐 아니라 혁신과정도 마찬가지로 경로를 통해 확산된다.

수많은 약한 고리를 가지고 있는 개인은 외부로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혁신의 확산 효과를 일으키는 데 큰 기여를 한다. 개인의 입장에서 약한 고리는 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거시적 통합을 추진하는 매개체의 기능도 수행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가족공동체와 같은 강한 고리에서는 이와 같은 확산 기능이 충분하게 발휘되지 못하곤 한다. 연결 관계가 서로 중복되기 때문에 확산 효과를 반감시키는 ‘위축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개인의 수평적 네트워크가 점점 발달하는 사회에서는 강한 고리보다 약한 고리가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라] 다섯 살짜리 손녀가 300년 전에 살았던 조상의 이름을 어렵사리 외워가는 와중에 외할머니의 얼굴은 잔뜩 찌푸려 있었지만 어린아이치고는 꽤나게 해낸 셈이었다. 조상의 이름을 외우는 일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다. 아버지가 오스만 마하무드의 혈족이니 자연히 나도 그 일원이다. 내가 나이를 더 먹으면 위대한 다르드 가문이 시작된 800년 전의 부계 조상의 이름을 외우게 될 것이다. 외할머니는 어르고 달래다가 안 되면 때리면서까지 가문의 조상 이름을 외우도록 만든다.

외할머니는 회초리를 들이대며 경고한다. “똑똑히 듣거라. 네가 외운 그 이름들이 너의 힘이 되어줄 거다. 그 이름들이 바로 너의 혈통이기 때문이지. 네가 그들을 존중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어. 그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버림받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비참하게 살다가 쓸쓸히 죽게 된다.” 소말리아 아이들은 누구나 자신이 속한 가문의 족보를 외워야 한다. 소말리아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만나면 일단 상대방의 가문부터 따지고 보기 때문에 족보 암기는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다. 서로의 족보를 따지다 보면 어느 순간 같은 조상의 이름을 만나게 된다.

같은 조상의 자손이라면, 그 조상이 여덟 세대보다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할아버지라 해도, 두 사람은 사촌 지간이 된다. 위대한 가문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단지 그 이유만으로도 서로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환대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부계의 가문에 속하지만, 어머니의 혈통도 함께 외워두면 여행을 하거나 낯선 이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다.

[마] 박군 경유(朴君景兪)의 누이는 김씨의 처인데 지아비를 따라 죽으니 조정에서 일찍이 정려(旌閭)의 은전을 내렸다. 그 뒤 경유가 죽자 그의 아내 이씨가 의(義)에 따라 처신한 것이 경유의 누이에 비해 더욱 뛰어났다. 그래서 또 그 집에 정문을 세우기를 김씨 처의 경우와 같이 하였다.

아! 이런 일은 세상에서 드물게 있는 바이거늘 마침내 박씨의 집안에는 저와 같이 용이하니, 또한 어찌 근본한 바가 없이 그러하겠는가? 박군은 나를 종유(從遊)한 지 꽤 오래되었는데, 그 사람됨이 온유하고 효우(孝友)하며 평소에 『소학(小學)』으로써 몸을 다스렸다. 다른 사람에 있어서는 혹 마지못해 한숨지으며 하는 일이라도 박군은 날마다 항상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린 누이와 젊은 아내가 귀에 젖고 눈에 익어 그 의열(義烈)을 보기를 마치 물 길고 방아 찧는 일처럼 몸소 할 만하고 술과 음식을 의논하여 마련하는 것같이 여겼으며, 그다지 가혹하여 행하기 어려운 일로 보지 않고 참으로 보통 남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한 번도 얻기 어려운 것을 그 집안에서는 15년 사이에 두 번이나 보게 된 것이다.

박군은 밀양인(密陽人)으로 자(字)는 치연(稚然)이며 자호(自號)는 담영(澹寧)이라 한다. 이씨는 학생 윤배(允培)의 딸인데 임인년(1782) 5월 18일에 죽으니, 그때 나이 36세였다. 죽은 그 이듬해 정월 21일에 나라에서 정문을 세우도록 명하였다.

1 [가]의 관점에서 [나]를 설명하시오. [20점]

2 [라]와 [마]에 담긴 가족 개념의 공통적 특징을 제시하고 [다]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하시오. [30점]

3 제시문 [가]~[마]를 모두 이용하여, ‘가족 개념의 변화와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30점]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에 이혼 가정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청자의 눈도 이제는 낯설지 않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이혼이라는 것이 숨겨야 한다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조이혼율(粗離婚率, crude divorce rate)은 이혼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에 발생한 총 이혼 건수를 당해 연도의 총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의미한다. 조이혼율은 산출방법이 간편하여 국제비교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한편, 유배우이혼율(有配偶離婚率)은 혼인 상태에 있는 유배우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의미한다. 유배우이혼율은 이혼이 가능한 유배우 인구를 분모로 한정하기 때문에 설명력이 높은 지표이다.

반면, 과거에 언론 기사 등에서 ‘이혼율’이라고 지칭되었던 이혼비(離婚比)는 그 해에 발생하는 이혼 건수를 그 해의 혼인 건수로 나누어 산출하는 지표로서, 혼인에 대한 이혼의 상대적 크기일 뿐 이혼율과는 다르다. 즉, ‘혼인 몇 쌍 중 이혼 몇 쌍’과 같은 표현은 이혼율이 아닌 이혼비를 표현한 것이다.

- (1) 2008년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은 2.4, 유배우이혼율은 4.8이었고 이혼비는 0.36이었다. 2008년 초에 혼인 상태에 있는 유배우 인구가 약 2천4백만 명이었다고 할 때, 주어진 지표 값들을 기초로, 1년 후인 2009년 초의 유배우 인구 규모를 추정하시오. (단, 유배우 인구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는 없다고 가정한다. 또한 혼인 또는 이혼 1건에는 2명이 관련됨에 주의하시오.)
- (2) 2008년의 혼인 건수가 실제에 비해 가상적으로 크게 감소하여 이혼 건수보다도 수가 적었다고 상상해 보자. 이 가상적인 변화가 2008년의 조이혼율 · 유배우이혼율 · 이혼비의 값에 각각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이혼율’이 다른 지표들에 비해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 논하시오.